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특성 연구

- 보그(Vogue)지를 중심으로 -

이 윤 정

춘해보건대학 피부미용디자인과 조교수

A Study of the Hybrid Characteristics of Make-up

- Focusing on Vogue Magazine -

Youn-Jeong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kin Esthetics & Beauty Design,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투고일: 2009. 10. 9, 심사(수정)일: 2010. 1. 5, 게재확정일: 2010. 1. 5)

ABSTRACT

In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cultural industry during the 21st century, hybridity is consistently shown in which different techniques, systems, and sorts in society, industry, culture, and art are comb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ybrid make-up that is shown in the field of make-up as a practical art reflecting society and culture of a specific period, to understand the tendencies of modern make-up, and to present data for predicting changes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hybrid characteristics of make-up indicate as follows. First, hybrid make-up at a timely aspect in which senses transcending times by mixed expression of traditional classicism and modernism coexist and mingled. Characteristics of hybrid make-up at a local aspect are shown in one make-up by expressing modern tendencies that break from homogeneity, uniformity, and concentration as interests in other cultures and borrowing them in modern images. Also in modern period, characteristics of hybrid make-up at a cultural aspect are shown by mixed expression of conflicting cultural factors such as modern beauty of cutting-edge technology, female & male, and elegance & activeness in one makeup. Within the multiplex, modern social system in this period of cutting-edge technology, "tendency of hybrid design" as a social, cultural phenomenon is shown to be a complex, new designing tendency due to mixture and deconstruction of various genres. Hybrid make-up, seeking diversification and open-mindedness, is predicted to be consistently developed owing to infinite materials of design, being expected to be stronger and newer in the future.

Key words: hybrid(하이브리드), mixture(혼합), culture(문화), Deconstruction(해체),
make-up(메이크업)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21세기는 과학, 기술, 정보, 문화산업의 빠른 발전 속에서 시·공간의 경계가 붕괴되었고 사회 계층간의 구분, 예술양식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사회적 역할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제품 생산 면에서도 복합 기능을 추구하고 다른 장르의 디자인이 혼합된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인들의 다양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미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예술 양식의 혼재 경향을 보이므로 하나의 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20세기 이후 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시대를 지배하는 양식적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의 추구로 인해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많아지고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을 보이는 것이다.¹⁾

이러한 양상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이브리드(Hybrid)'라는 용어는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 예술, 디자인 분야와 문화 현상 속에 나타나고 있으며 한 사물에 서로 다른 종류와 양식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상품이나 현상을 일컫는다. 하이브리드 현상은 특히 메이크업, 패션을 포함하는 디자인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이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실용 예술인 메이크업에서 과거 적용되었던 메이크업의 원칙들에서 벗어나 혼재된 변화적 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그 흐름을 진단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다원주의, 해체주의, 절충주의, 퓨전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양식의 혼재 경향을 연구해 왔으나 패션분야에서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김자민, 하지수²⁾, 임영자, 한윤숙³⁾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연구가 있으며,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경향을

연구한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의 다중적인 현대 사회 시스템 속에서 복잡성과 유희적 새로움을 디자인 요소로서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현상은 생활 속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동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실용예술인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조형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대 메이크업의 경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메이크업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로는 첫째, '하이브리드'의 용어를 정의하고 메이크업과 패션에서의 하이브리드 개념을 파악한다. 둘째, 하이브리드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셋째, 메이크업, 패션, 제품 디자인의 하이브리드 디자인 경향을 분석한다. 넷째, 메이크업에서의 하이브리드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하이브리드 현상이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인 2001년부터 2009년까지로 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사회학, 심리학, 건축학, 디자인학 관련 서적들과 학위·연구논문들을 이론 고찰하였고 패션·뷰티 전문잡지인 보그(vogue)지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보그'는 패션·뷰티분야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권위가 있는 전문 잡지로서 트렌드와 스타일 등을 영향력 있게 다루어 두터운 일반 독자층과 함께 논문의 실증 자료로도 빈번히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메이크업 논문의 특성상 논제와 관련된 얼굴 메이크업이 크게 나타나는 사진만을 선별하여 수집해야하는 제한된 조건이 충족되는 총 52점의 사진을 수집·분석하였다.

II. 하이브리드의 개념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는 첫째,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종, 품종, 특성 사이에서 탄생한 이형, 둘째, 두 개의 상이한 문화나 전통의 혼합에 의해 출현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⁴⁾ 또한 하이브리드는 흔히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술이나 시스템이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⁵⁾로서 ‘잡종’, ‘혼성물’을 뜻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나 사물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일컫는 하이브리드 현상은 본래 장르가 갖고 있었던 해체와 진화의 성질과 맞물려서 현대 사회에 급격한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어가는 우리 생활의 시스템이 일렬적 배열에서 다중적 배열로 변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메이크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는 그동안 메이크업의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메이크업의 원칙들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양식과 요소들이 혼재된 변화적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얼굴에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가 동시에 표현된 형태와 이질적인 색채, 질감 등이 나타나거나 서로 다른 양식이나 스타일이 혼합표현 되어 특정한 하나의 패션 이미지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 없는 해체와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는 디자인 면에서 하나의 옷에 서로 다른 스타일과 양식이 함께 표현되거나 기능 면에서 다양한 기능적 시스템이 결합되거나 오감과 패션이 결합된 옷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하이브리드 등장인 사회·문화적 배경

하이브리드가 등장한 배경은 우선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과 저공해를 달성하려고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과 전기모터 2개의 동력원을 갖고 만들어졌으며 하이브리드 미디어는 인쇄 매체, 인터넷, 이동통신의 WAP(Wire-

less Application Protocol), 디지털 위성 TV가 결합되어 종합적인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그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분야인 건축에서 등장한 하이브리드 건축은 어떠한 사조나 양식을 표현하기 보다는 건축의 복합성에 대한 현상학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현대건축에서 하이브리드 개념은 건축의 다원성과 규범해체의 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으로서, 건축자체의 복합성(구조·기능·기술·미)에도 내재되어 있으며, 16세기 후반의 매너리즘 및 18~19세기의 절충주의 그리고 20세기 초의 과도기에서 비롯되는 매우 포괄적이며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다⁷⁾고 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deconstructivism)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⁸⁾고 할 수 있다.

과학 문명시대에 차별화된 개성미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사회·문화적 흐름은 이와 맥을 같이 하는 패션·메이크업 분야에서도 20세기말에서 21세기 현 과도기에 걸쳐 특정 양식이나 스타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복잡적이거나 해체적인 형태들이 하나의 몸이나 한 얼굴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현상과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메이크업과 패션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경향 분석을 하기 위한 하이브리드의 등장 이유와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분석되었다.

1. 해체주의의 영향

1960년대 이후 탈구조주의 생성과 함께 데리다(Derrida)의 해체주의 이론이 발표되어 철학, 문학, 건축, 미술, 디자인 등의 분야와 사회 전반에 걸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체주의 이론은 이분법적 대립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시간적·공간적 경계를 초월하는 데리다의 ‘차연(differa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형이상학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 서구 사상, 이성중심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차이가 지연되는 것을 말하므로, 시·공간의 초월과 수평과 수직의 대립관계 파괴, 시·공간의 개

념 해체 등을 의미한다.⁹⁾ 해체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분법적 요소들은 상충적 이기보다 서로 대체될 수 있고 보충될 수 있는 '상호보충적' 존재라는 인식을 토대로 그 두 요소사이의 자유로운 치환을 허용하여 해체작업을 시도하였다.¹⁰⁾

그러므로 해체주의는 존재나 사물의 진리가 직관에 의해 직접 파악될 수 없고 시간적 차이를 갖고 이어져 내려왔으며 수평과 수직의 대립관계가 파괴되고 상호텍스트성을 주장하여 서로 상호보완의 관계를 맺으며 작용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규범적 관습이나 지배, 닫힌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인용, 텍스트와 글쓰기, 차연, 보충, 흔적, 현존과 부재, 상호텍스트성을 특성으로 한다.

현대에 의미의 모호와 확장된 다의적 해석, 소외된 계층과 다민족에 대한 관심, 문명화에 대한 반발 등 지역, 시대, 신분, 문화 계층적 개념을 초월한 해체적 현상들이 나타나서 메이크업과 패션을 비롯한 예술·문화 전반의 하이브리드화에 영향을 주었다.

2. 차별가치적 소비개념

1960년대 보드리야르(Baudrillard)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론에서 상품의 소비 개념은 사용가치의 소비를 포함하면서 그것에다 행복, 안락, 성공, 위세, 근대성 등도 포함되며 후자에 본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사물을 기호로 파악하게 하고, 사회를 의미작용의 체계로 해석하게 한다. 즉 인간의 욕구를 사물에 대한 욕구가 아닌 차이에 대한 욕구 즉, 사회적 의미에 대한 욕구로 해석한다. 이런 해석을 기초로 보드리야르는 사회적 차이화의 논리를 만들어 내었으며 이는 사람들이 상품의 구입과 사용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나타낸다는 것이며, 소비란 생산적 활동이며 상품이 아니라 이미지이다.¹¹⁾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타인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소비에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는 다양성과 새로운 유희성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현상을 지속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 과학기술의 발전

현대 사회의 과학과 기술, 정보의 발달은 전 세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여 예술이나 생활면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으며, 만들어지는 작품은 다양한 기계적 조작을 거침으로써 전통예술이 가지고 있는 예술가의 인격의 반영인 개성적 가치와 뉘앙스를 잃고, 평균화된 불특정 대중에 대한 기성품으로 대량 생산되었다.¹²⁾

그러므로 재료의 순수한 본질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여러 가지 소재가 믹스되어 새롭게 출현한 신소재의 혼합, 다양하고 최신의 정보를 항상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디자인의 형식성에 자유로움이 표현된 요소들이 하이브리드와 같은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IV. 하이브리드 디자인 경향

패션, 메이크업, 제품 디자인 등 디자인 측면에서의 하이브리드화는 컨버전스(convergence) 경향으로 나타났다. 컨버전스는 융합과 통합의 의미로서 성, 과학기술, 상품, 공간 등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정반대 컨셉으로 결합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 '디지털 컨버전스'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컴퓨터, 가전, 통신 등의 여러 가지 기기와 기반 기술이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 디지털 기술은 독자적인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전 제품이나 디지털 기기 등에 국한되어 왔으나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주방 기기, 화장품, 패션 분야에서도 컨버전스화된 제품들을 볼 수 있다.¹³⁾

패션 디자인분야에서 컨버전스 개념으로 착용자의 의도에 의해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 실례를 살펴보면 간단한 조작에 의해 '코트'에서 '의자'로 변형되는 아이템, 광활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으며 진행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GPS나 나침반이 내장

되어 있는 스포츠 웨어 등이 있다.

또한 오늘날 미디어, 정보기술, 문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문화적 영역이 사회적 삶의 중심을 이루며 정체성 형성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단순한 기술적 영역의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대한 관념과 개인의 생활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에 최근까지도 스포츠와 패션은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고 여겨져 왔으나 스포츠는 이제 패션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강조되고 있으며 스포츠 웨어와 도시적 패션과의 결합은 시대적인 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⁴⁾ 즉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과 시공간 개념의 붕괴는 일과 여가, 직장과 가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스포츠와 레저가 생활속에서 중요시되고 타운웨어와 스포츠 웨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패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존 워커(John A. Walker)는 모더니즘 이후의 사회문화적 특징 중의 하나로 다원주의¹⁵⁾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개인마다의 개성을 중시하고 수직적 위계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탈 중심화 현상이 반영된 태도이다. 즉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진 대중적 사회 구조와 다양한 스타일, 이념, 문화, 지역, 민족, 계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원적 요소들의 수평적 조화로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탈 중심화 현상에 따른 다원성 추구는 패션에서 하이브리드화 경향이 나타나게 된 요인이 되었다. 패션의 '하이브리드'는 다른 패션 감각의 공존을 의미하며 크로스오버(crossover)·융해·융합·합병이라는 의미의 퓨전(fusion)과 동의어이다. 바이오 테크놀로지(bio technology)가 주목되는 시대를 반영하여 생겨난 용어이다.¹⁶⁾ 그러므로 패션에서 바로크, 로코코와 같은 역사적 양식과 21세기 패션 등 시간적 차이가 있는 과거에 미래가 결합된 시대들의 혼합, 동·서양과 에스닉 등의 지역적 스타일 혼합, 다양한 색상, 문양, 디테일, 이질적 소재·성적 요소의 혼합, 상·하위문화의 혼합 등 문화적 요소가 혼용된 하이브리드 현상이 나타나서 조화의 미보다는 극단

적 혼합에 의한 창조적이고 일탈의 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 실례로서 2000년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컬렉션에서도 여러 지역의 에스닉풍, 로코코, 크리놀린 시대 등 역사적으로 여러 시대를 연상시키는 실루엣과 문양, 디테일, 미래적인 메탈릭 패브릭, 비즈 장식 등이 하나의 의상에 표현되어 지역과 역사, 여러 문화기술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복잡하고 독특한 미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패션과 흐름을 같이 하는 메이크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 특성도 시간적 관점, 지역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V.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 특성

198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패션 감각의 공존 현상은 메이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간의 조합이나 절충을 통하여 새로운 스타일들이 혼재했으며, 메이크업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정해 놓았던 규칙과 질서에서 벗어나 여러 요소와 양식들이 해체와 혼용되어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앞에서 파악한 하이브리드 등장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존 워커의 '다원주의' 특성에서 나타났듯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에 현대인들의 개성미와 차별적 소비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수평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탈 중심화 경향은 수직적 시간 개념과 수평적 공간 개념을 파괴한 해체적·상호보완적인 절충과 혼합의 형태로 메이크업에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 특성은 이러한 해체의 의미성과 앞에서 분석한 패션의 하이브리드 디자인 경향을 바탕으로 하여 시간적 관점, 지역적 관점, 문화적 관점의 특성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1. 시간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현대 정보화 사회는 순간성과 즉흥성이 모든 문화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과거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동경하여 과거의 것들을 인용, 재인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친숙한 이미지로 현대에 맞게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메이크업이나 패션 분야에서도 과거와 현재의 모티브가 혼합되어 클래식과 모던 이미지가 결합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¹⁷⁾에서의 메이크업은 우리나라 전통의 고전적 여성미가 드러나는 청아한 이미지의 흰 피부, 가는 눈매와 아이라인이 강조되지 않은 자연스런 아이(eye) 메이크업, 자연스럽게 홍조 띤 블러셔(blusher), 역시 자연스런 갈색의 입술색으로 고전적이고 깨끗하며 단아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이지만 눈썹은 두껍고 직선형을 표현하여 둥근형의 가늘고 고전적 형태와는 달리 모던한 현대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고전주의와 현대의 모더니즘을 나타내는 모티브들을 혼합하여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나타나는 메이크업 경향 중 하나이다.

<그림 2>¹⁸⁾는 1930~40년대 고전적 이미지의 입술과 모던한 이미지의 아이 메이크업이 한 얼굴에 표현되었는데 클래식과 모던은 서로 상반된 패션 이미지이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렬한 원색적 레드 컬러를 입술산을 강조한 큐피드 보우(cupid's bow)¹⁹⁾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클래식한 여성미를 강조하면서도 아랫입술은 레드를 바탕으로 블랙라인을 그라데이션하여 그동안 윗입술을 아랫 입술보다 어두운 명도로 표현하는 립 메이크업의 원칙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뉴 테크닉을 사용하였으며, 눈은 화이트 펜슬로 눈 앞머리를 새부리처럼 강조하고 점막과 연결하여 간결하면서도 강한 현대미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하나의 얼굴에 수직적 시간 개념인 과거와 현재 즉, 고전과 현대적 이미지를 함께 표현하여 시간을 초월한 해체와 다양성을 혼합함으로써 서로 다른 패션 감각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이 나타나서 더욱 새롭고 신선한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다.

2. 지역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현대 사회는 동질화, 획일화, 집중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이 나타났다. 정보 공유의 고속화와 전 세계의 지구촌화 경향에 따라 서

로 다른 지역의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러한 문화적 경향이 혼합하여 '지역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경향'이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역적 요소들이 각각의 독자성을 잃지 않고 관련하여 표현되는 다원주의에 대한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²⁰⁾은 포세린 컬러 파운데이션과 화이트 파우더로 창백하게 피부 표현을 하였으며 핑크 컬러를 눈 주변에 그라데이션하고 눈꼬리 방향으로 길게 강조하면서 아이라인도 길고 가늘게 연장하였다. 눈썹은 두껍고 길며 앞머리를 가지도록 하고 꼬리가 뾰족하면서 길게 그렸으며 입술 컬러는 메이크업하지 않은 누디 립으로 표현하였다. 본래 가부키 메이크업<그림 4>²¹⁾의 특징인 흰 피부, 레드 아이새도우를 표현하는 것은 같으나 짙고 몽툰한 눈썹이 길고 상승형인 서양적이고 현대적인 눈썹으로, 붉고 작은 입술이 현대적 이미지의 노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어 일본 가부키 메이크업의 지역적인 특수한 형태와 색채가 서양적·현대적 이미지와 결합·변형하여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그림 5>²²⁾는 서구적이고 모던한 이미지의 컨투어링(contouring)이 잘 된 메이크업과 아프리카 지역 흑인종 특유의 입술인 두껍고 짙은 색의 입술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지역적 스타일이 한 얼굴에 복합적으로 변용된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그 외에도 동양 문화 요소와 서양 문화 요소를 결합하여 독특하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 동양권인 일본이나 중국, 인도, 북미 인디언, 동부 유럽, 아프리카 지역 등의 고유한 민속적 이미지를 현대적 이미지에 차용한 메이크업 등이 표현되어 다양한 관심 지역 문화와 내가 속한 문화를 혼합하여 열린 사고로서 새롭고 다양한 형태를 재창조한 메이크업이 표현되고 있다.

3.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오늘날 과학 기술과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해체되고 차용, 보충, 혼합되어 비규범적이고 자유로운 디자인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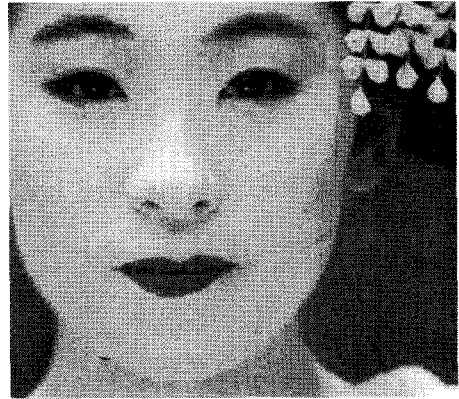
〈그림 1〉 Prada,
Vogue Korea, 2008, p. 452.



〈그림 2〉 Miu Miu,
Vogue Korea, 2008, p. 103.



〈그림 3〉 Celine,
Vogue Korea, 2008, p. 432.



〈그림 4〉 Karl Groning,
Decorated Skin, 1997, p. 213.

〈그림 6〉²³⁾은 하이테크놀로지의 상징적 기호인 그래픽(graphic)적 요소가 메이크업에 적용되어 블랙의 언더 아이라인이 원래의 속눈썹 라인이 아닌 더 아래 쪽으로 왜곡되어 그려졌고, 아이 홀이 블랙라인으로 강하게 표현되면서 눈두덩이에 블랙의 그라데이션 터치가 거칠게 그려지고 실버 펄이 눈앞머리와 언더아이 중앙에 터치되어 모던 하이테크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전달한다. 반면 눈썹은 연하고 내추럴하게 표현

되었고 입술도 누드 베이지 컬러로 자연스러우면서 매트하게 표현되었다. 패션은 블랙과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여 현대적이지만 곡선적이고 여성적 실루엣에 수공예, 나뭇잎과 꽃장식을 한 자연소재 모자가 코디네이션되어 테크놀로지와 자연, 여성 등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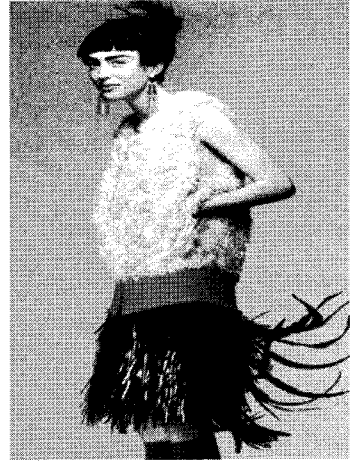
〈그림 7〉²⁴⁾은 자연스럽고 여성적인 난색 중심의 아이 메이크업에 모던하고 다소 인위적인 남성적 이



〈그림 5〉 John Galliano,
Vogue Korea, 2007, p.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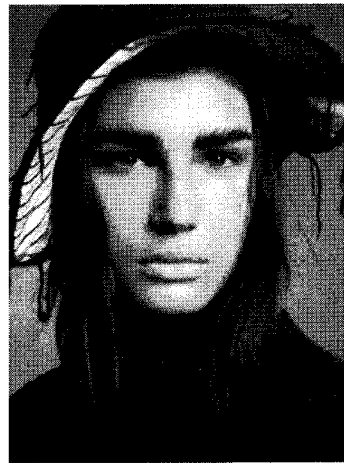
〈그림 6〉 Fendi,
Vogue Korea, 2008, p. 478.



〈그림 7〉 Prada,
Vogue Korea, 2007, p. 255.



〈그림 8〉 이영희 한복,
Vogue Korea, 2005, p. 120.



〈그림 9〉 Pat McGrath,
Vogue Korea, 2003, p. 270.

미지의 과장된 길이로 표현된 눈썹화장이 매치되었다. 패션도 부드럽고 여성적인 모피 베스트에 현대 기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필름 소재의 스커트가 매치되어 메이크업과 의상에서 상반된 요소들이 해체·재조립됨으로써 자연과 기술, 문화적 요소들이 대치되기보다는 상호 보충적으로 어우러져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8〉²⁵⁾은 슈 우에무라(Shu Uemura)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메이크업이다. 아이새도우 메

이크업이 면 중심의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표현되어 우아하며 부드러운 입체감을 주면서 눈 밑에 얼굴을 가로지르는 과장된 선은 강렬하면서 차가운 이미지를 전달하여 우리나라의 부드러움과 강함의 이미지가 조화됨으로써 자연미와 첨예한 현대미가 혼합된 문화적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9〉²⁶⁾는 여성의 얼굴에 남성적 메이크업을 의도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브라운 컬러로 음영만을 표현한 아이 메이크업, 두껍고 힘 있는 헤어를 강조

<표 1>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경향 특성

특성 구분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경향	미적 특성
HYBRID	시간적 관점의 Hybrid Make-up	전통적·고전적 이미지 메이크업과 현대적 이미지 메이크업의 혼합·재구성 -가는 눈매의 아이라인(고전)+굵고 직선적 눈썹(현대) -큐피드 보우 립(30~40년대 클래식)+화이트 아 이라인(현대)	다원성
	지역적 관점의 Hybrid Make-up	세계 각 지역의 민속적 이미지 메이크업과 현대적 이미지 메이크업의 혼합·재구성 -흰피부, 레드 아이새도우(일본 가부키)+긴 상승 형 눈썹, 누디 립(서양) -두껍고 짙은 입술(아프리카)+컨투어링 메이크업(서양)	다원성 장식성
	문화적 관점의 Hybrid Make-up	여성과 남성, 자연과 첨단과학기술, 상·하위문화, 우아미와 활동성 등 서로 상반된 개념의 문화 요소들이 혼합·재구성된 메이크업 -그래픽적인 색채와 질감의 아이라인(하이테크)+연한 눈썹, 누디 립(자연) -난색의 부드러운 아이 메이크업(여성미)+두껍고 긴 검은 눈썹(남성미) -강한 선(현대미)+면 터치의 부드러운 아이 메이크업(자연미)	다원성 전위성 장식성

한 눈썹, 붉은 색과는 거리가 먼 누디 립 컬러로써 본래 지닌 여성성에 남성성을 중첩하여 성의 경계를 초월한 다양한 성적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은 자연과 첨단 기술과학, 여성과 남성,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우아미와 활동성 등 문화적 다양성과 성의 경계를 초월하는 이미지를 융합·재조합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호 소통적 이미지의 메이크업이 표현되고 있다.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경향과 미적 특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VI. 결론

오늘날 전 세계는 빠른 속도로 정보와 문화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산업,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술이나 시스템, 종류들이 결합되는 하이브리드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대에 지속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현상에 관하여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찰하고 하이브리드 디자인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실용예술의 한 분야인 메이크업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특성은 하이브리드 디자인 경향과 해체주의의 의미

성을 바탕으로 분류한 세가지 관점 즉, 시간적·지역적·문화적 관점을 중심 특성으로 하여 메이크업 구성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여러 요소들의 상충보다는 조합과 절충으로 상호보완을 시도하는 해체주의와 사용가치의 소비 개념을 포함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소비 개념으로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생산의 기성품과 다양한 신소재 제품이 생산되었고 자유로운 디자인 형식이 반영된 개성미를 존중하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메이크업 분야에서 나타난 하이브리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 분야 뿐 만 아니라 건축, 음악, 미술, 패션, 화장품 등 생활문화와 용품분야에서도 다양한 요소들이 정반대의 개념으로 결합하는 컨버전스 경향이 나타나면서 하이브리드화 되었다. 유비쿼터스 환경과 시공간 개념의 붕괴로 일과 여가,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패션과 문화예술에서도 크로스오버, 융합, 퓨전으로 통용되는 하이브리드 경향이 나타나서 다원적 요소들이 수평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창조적이고 일탈적 미를 추구하게 되었다.

둘째,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문화취향이 두드러지

는 현대에 전통적인 고전미와 모던한 현대미가 한 메이크업에 혼합 표현되어 수직적인 시간개념을 초월하여 다른 감각이 공존, 혼용되는 시간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특성이 나타났다.

셋째, 동질화·획일화·집중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현대에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문화적 경향이 융합되어 패션과 메이크업에서도 동양과 서양 여러 민족의 특색있는 형태와 색채가 현대적 이미지에 차용되어 한 메이크업에 표현됨으로써 지역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특성이 나타났다.

넷째, 현대는 첨단 과학기술의 환경속에서 자연미와 첨단 기술의 현대미, 여성과 남성,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우아미와 활동미 등 상반된 문화적 요소들이 한 메이크업에 융합·재조합되어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특성이 나타났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인 '하이브리드 디자인 경향'은 정보화 사회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해체 및 혼합으로 인해 복합적이면서도 새로운 디자인 경향으로 지속적인 출현이 예상된다.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은 혼합, 변용, 재구성을 통해 수평과 수직의 대립을 해체하고 시간, 지역, 문화, 계층을 융합하는 자유로운 열린 사고의 결과이며 현대인들의 다양성과 유희적 새로움을 추구하는 개성적 성향으로 인해 앞으로도 디자인의 무한한 소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대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여 오늘날 나타나는 다양하고 혼돈스런 메이크업 현상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하이브리드 디자인 작업을 통한 재창조의 가치는 미래의 메이크업디자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의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므로 후속 연구에는 다양한 디자이너 컬렉션 메이크업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명희 (1991). 1980년대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

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5.
 2) 김자민, 하지수 (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르간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 *복식*, 55(8).
 3) 임영자, 한윤숙(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복식*, 51(5).
 4) Merriam Webster (1986).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erriam Webster Inc, p. 47.
 5) 김자민, 하지수. *앞의 책*, p. 3.
 6) *위의 책*, p. 12.
 7) 이일형 (1995). 현대 건축의 혼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1(1), 통권 75호, pp. 35-36.
 8) *위의 책*, p. 37.
 9) 김정화 (2002). 현대 해체주의의 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김성곤 (1989). *탈 모더니즘 시대의 미국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 87-88.
 11) 이진우 (2000). *지상으로 내려온 철학*. 서울: 푸른숲, p. 162.
 12) Gawano Hiroshi (1992). *藝術 記號 情報*. 진중권 역 (1999). *예술, 기호, 정보*. 서울: 도서출판 새길, p. 134.
 13) 전해정, 하지수 (2007).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메가 트렌드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7(4), p. 113.
 14) Quinn Bradley (2002). *Techno Fashion*. Berg. New York, pp. 185-200.
 15) John A. Walker (1987). *Art in the Age of Mass Media*. 정진국 역 (1997). *대중 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p. 104.
 16) 라사라 교육개발원 (1992). *복식사전*. 라사라, p. 369.
 17) *VOGUE KOREA*. 2008.5, p. 452.
 18) *VOGUE KOREA*. 2008.2, p. 103.
 19) 이윤정 (2002). 입술화장의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3(2), p. 181.
 20) *VOGUE KOREA*. 2008.4, p. 432.
 21) Karl Groning (1997). *Decorated Skin*. Thames & Hudson, p.213.
 22) *VOGUE KOREA*. 2007.2, p. 272.
 23) *VOGUE KOREA*. 2008.5, p. 478.
 24) *VOGUE KOREA*. 2007.10, p. 255.
 25) *VOGUE KOREA*. 2005.10, p. 120.
 26) *VOGUE KOREA*. 2003, 8, p. 270.